



numbers

vol. 244

한국교회 전도 실태(목회자 조사)

목회자의 전도 열정이 높을수록 교회의 전도 성과 높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한국인의 불행 인식
- ② 한국인의 복권 구매
- ③ 한국 평균임금 OECD 비교

2024. 6. 18.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목회자의 전도 열정이 높을수록 교회의 전도 성과 높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는 전도가 필수적이다. 전도는 왜 하는가? 주님의 지상명령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보편적이고 모범적일 것이다. 한국교회는 저출산, 무종교인 증가, 가난한 성도 증가 등 교인 감소의 삼중고를 맞닥뜨리고 있다.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한목협, 2023)'에 따르면, 교인의 전도 활동과 목회자가 생각하는 전도 활동 만족도는 최근 10년 사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을 위한 노력을 그칠 수는 없다.

지난주 예정통합 총회에서 소속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전도에 대한 인식과 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으로 '영혼 구원'을 꼽은 비율이 압도적이었으나, 목회에서 '전도'의 중요성은 '예배'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전도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 예산 중 11% 정도였다. 반면, 전도 관련 설교 횟수가 많고, 새신자부를 운영하고 새신자교육이 있는 등 담임목사가 전도에 열의를 보일수록 그 교회의 전도 성과가 높고 새신자 정착률도 높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전도 실태 조사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의 예장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417명 (유효 표본)
조사 방법	모바일 조사
표본 추출 방법	편의 추출 (Convenience Sampling)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3년 11월 8일 ~ 2024년 3월 22일
조사 주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조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사 : 예장통합 총회• 연구·분석 :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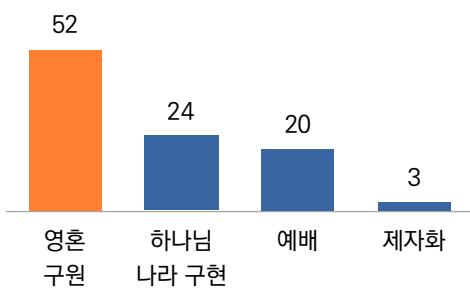
01

[전도의 중요성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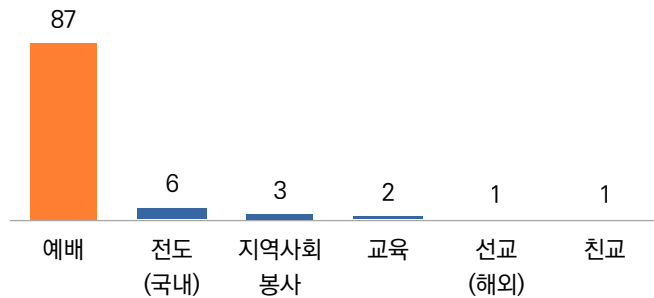
목회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영혼 구원' 압도적으로 높아

- 담임목사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일까? '영혼 구원'이란 응답이 절반 이상(52%)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현' 24%, '예배' 20% 등의 순이었다.
- 목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1순위)으로는 담임목사 대다수(87%)가 '예배'를 꼽았고, 이어 '전도(국내)' 6%, '지역사회 봉사' 3%, '교육' 2%, 등의 순이었다. 앞서 교회의 사명으로서 '영혼 구원'을 압도적으로 꼽은 것과 비교하면 '전도'를 중요하다 꼽은 비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친 점이 대비된다.

[그림] 교회의 가장 큰 사명* (담임목사, %)



[그림] 목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담임목사, 1순위,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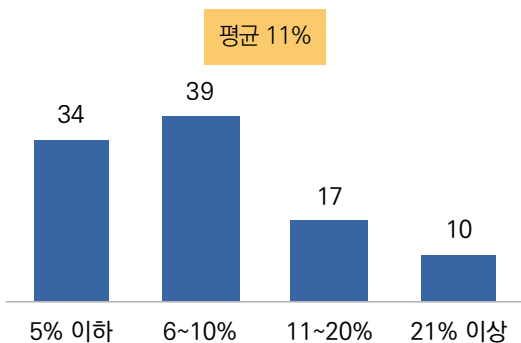


*기타 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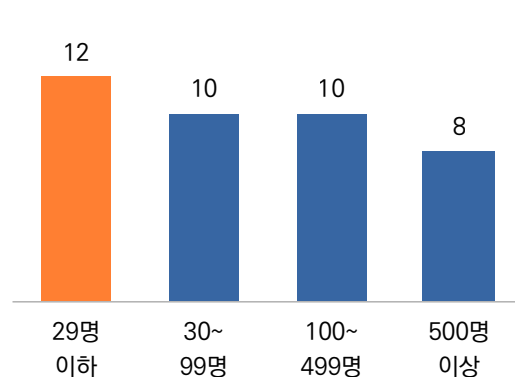
전도에 할당하는 예산, 전체 예산 중 11%!

- 그렇다면 교회 전체 예산 중 전도 관련 예산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교회 전체 예산 중 전도 예산 비중은 평균 11%였고,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소형교회가 대형교회 대비 보다 전도에 집중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 전체 예산 중 전도 예산이 21%이상인 교회는 10%에 그쳤다.

[그림] 전체 예산 대비 전도 예산 비중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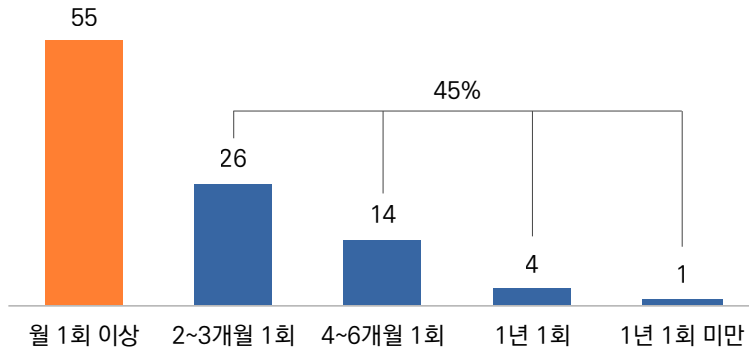
[그림] 교회 규모별 전도 예산 비중 (담임목사, 평균, %)



목회자 절반 가까이, 설교 시 월 1회도 전도 언급하지 않아!

- 목회자들은 설교에서 전도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언급하는지 묻은 결과, '월 1회 이상' 언급하는 비율이 55%였고, 다음으로 '2~3개월 1회' 26%, '4~6개월 1회' 14% 등의 순으로, 절반 가까이(45%)는 설교 시 전도를 월 1회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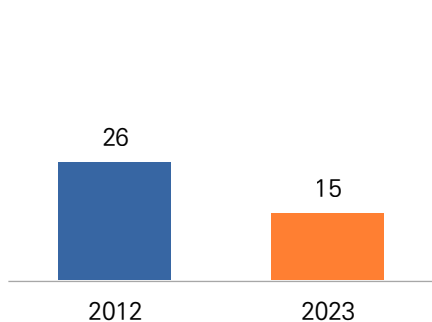
[그림] 설교 시 전도 언급 빈도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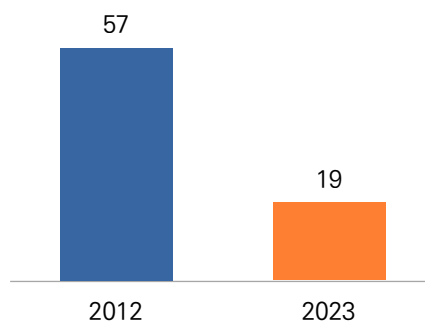
전도 활동 만족도, 10년 사이 1/3 수준으로 감소

- 한국교회에서 전도 활동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의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출석자 대상으로 '전도하여 출석시킨 경험'의 10여 년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2년 26%에서 2023년 15%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한 '시무교회의 전도 활동 만족도' 역시 2012년 57%에서 2023년 19%로 10년 사이 1/3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전도하여 교회 출석시킨 경험 (교회 출석자, %)



[그림] 시무교회의 '체계적인 전도 활동' 만족도 (담임목사, '매우+약간 만족' 비율*, %)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2023.04. (전국 담임목회자 802명, 온라인 조사, 2023.01.31.-02.12,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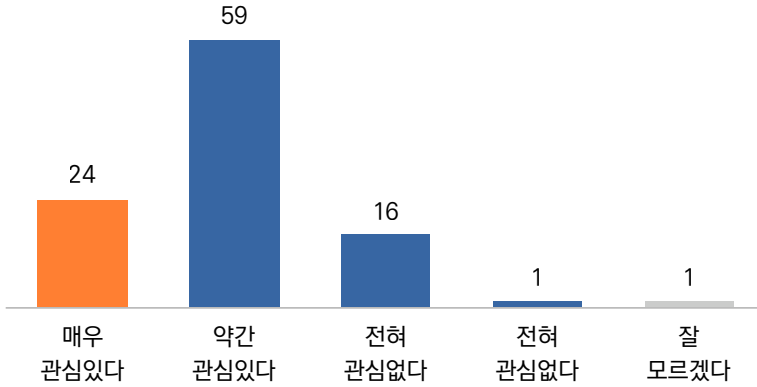
02

[전도 교육/훈련과 실행]

교인 중 전도에 대해 적극 관심자, 24%

- 전도에 대한 교인들의 관심도를 담임목사들에게 물었더니 ‘매우 관심있다’는 적극적인 응답은 24%로 4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교회의 전도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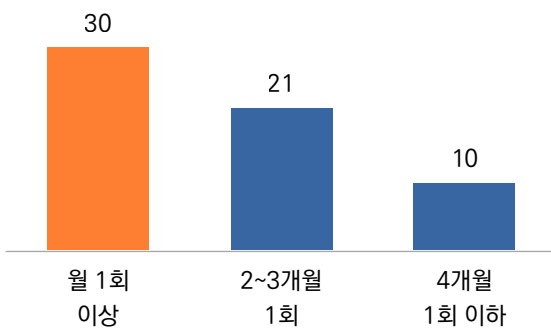
[그림] 전도에 대한 교인 관심도 (담임목사, %)



목회자 설교 시 전도 언급 빈도 높을수록 교인들의 전도 관심도 높아

- 교인들이 전도에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목회자의 설교 시 전도 언급 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특징을 보였다. ‘월 1회 이상’ 설교 시 전도를 언급하는 경우 ‘매우 관심있다’ 응답률이 30%인데 반해 ‘4개월 1회 이하’는 1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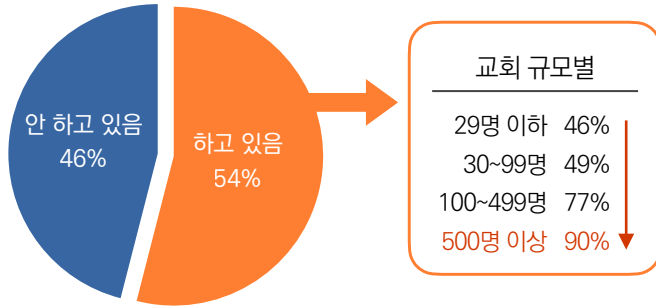
[그림] 설교 중 전도 언급 빈도별 교인의 전도 ‘매우 관심있다’ 비율 (담임목사, %)



절반 이상 교회에서 전도 교육/훈련 하고 있어

- 목회자에게 시무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지를 묻은 결과, '하고 있음'이 54%로 '하지 않고 있음'(46%)보다는 약간 더 높았다.
- 전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비율은 교회 규모가 클수록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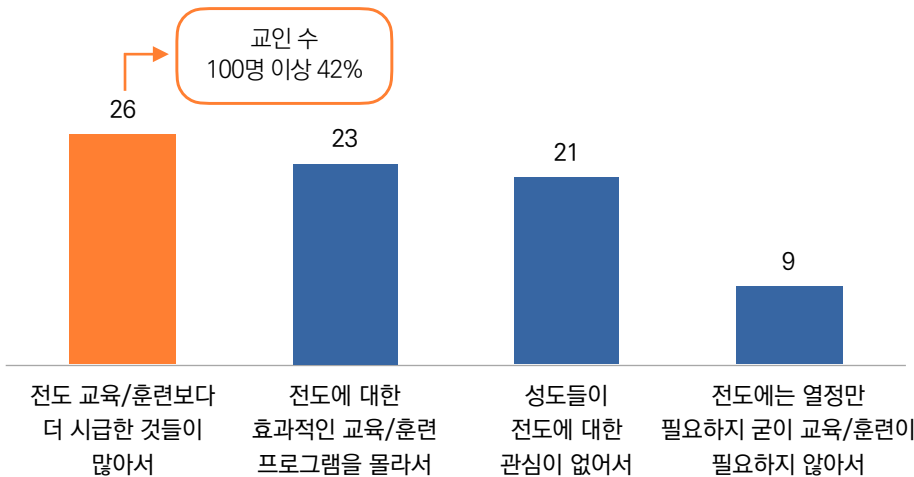
[그림] 전도 교육/훈련 실시 여부 (담임목사)



전도 교육하지 않은 이유, '우선순위에 밀려'!

- 앞서 '전도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목회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 결과, '전도 교육/훈련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많아서'가 2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전도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몰라서' 23%,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도 교육/훈련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많아서'는 교인 수 100명 이상 교회에서 42%로 전체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란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전도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모르고, 성도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이유는 교회의 노력과 관심 혹은 여력이 부족함을 방증하는 것이기에 보다 적극적인 목회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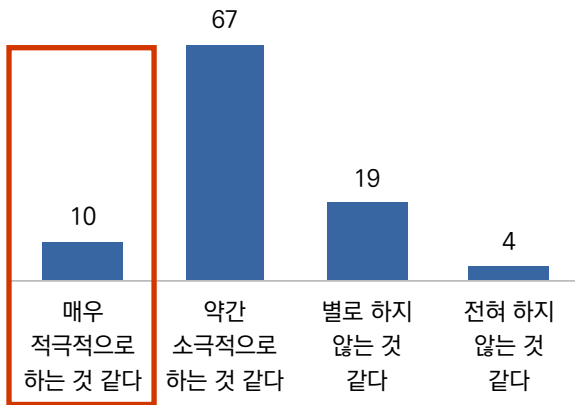
[그림] 전도 교육/훈련 실시하지 않은 이유 (전도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하지 않은 담임목사,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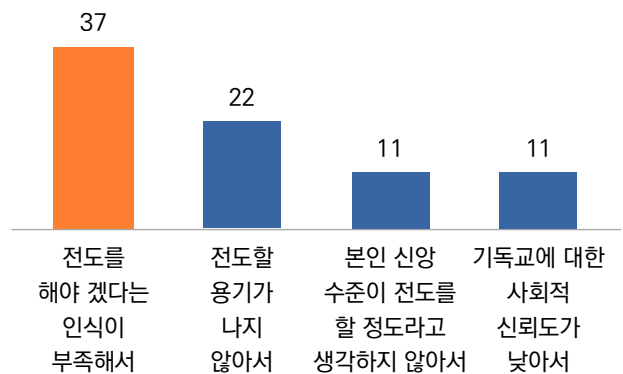
교인 중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자, 10%

- 담임목사들에게 교인들이 전도하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목회자 4명 중 3명(77%) 정도가 교인들이 ‘매우+약간’ 전도하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중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10%로 교인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했다.
-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에게 ‘왜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전도를 해야겠다는 인식이 부족해서(37%)’란 이유를 가장 높게 꼽았고, 다음으로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22%)’, ‘본인 신앙 수준이 전도를 할 정도라 생각하지 않아서(11%)’와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서(11%)’ 등의 순이었다.

[그림] 교인들의 전도 실행 여부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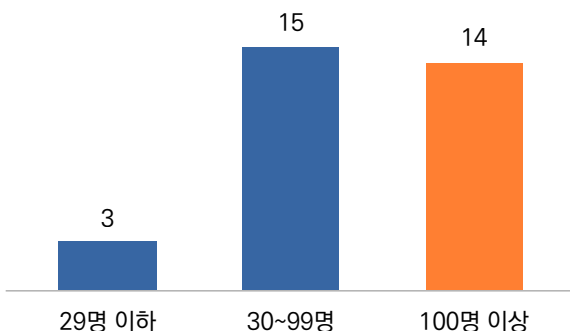
[그림]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담임목사, 상위 4위, %)



29명 이하 소형 교회가 상대적으로 전도 참여율 낮아!

- 교인 중 적극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는 비율을 교회 규모별로 살펴보면 29명 이하 초소형 교회의 전도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 앞에서 소형 교회의 전도 예산 비중이 대형 교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교인들의 전도 실행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교회 규모별 교인들의 전도 실행 (담임목사, ‘적극적으로 전도 하는 것 같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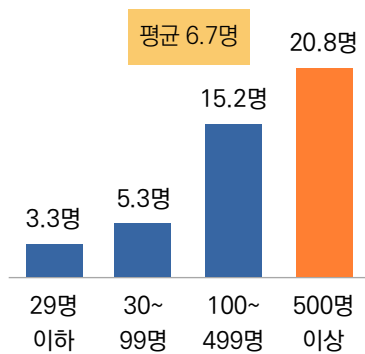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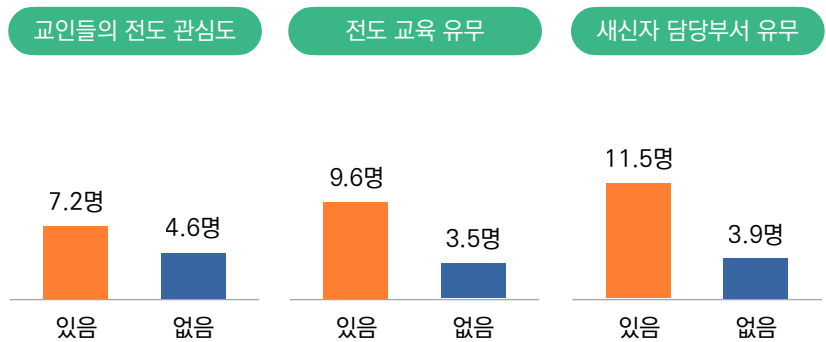
[전도 그 이후] 목회자의 전도 열정, 전도 성과에 큰 영향 미쳐!

- 이번에는 실제 전도를 통해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몇 명인지 물었다. 2022년 기준으로 평균 6.7명이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회 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 전도를 통해 교회 출석한 자 수를 교회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교인들의 전도 관심도'가 높을수록, '전도 교육과 새신자 담당부서'가 존재하는 경우일수록 전도로 교회 출석한자 수가 훨씬 많았다.
- 즉 교인과 목회자의 전도 열정이 높을수록 전도 성과가 높은 특징이 나타났다.

[그림] 전도를 통해 교회 출석 한 자 수 (담임목사, 2022년 기준, 교회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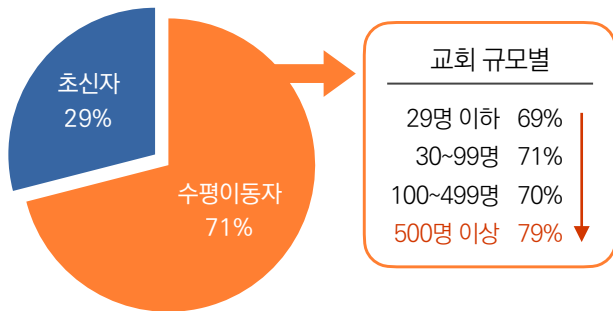
[그림] 교회 특성별 전도를 통해 교회 출석한 자 수 (담임목사, 2022년 기준)



전도에 의해 교회 출석한 자, 10명 중 7명은 수평이동!

- 이들 전도에 의해 교회 출석한 자 중 초신자의 비율은 29%로 10명 중 3명이 '신앙 경험이 없는 자'였고, 반대로 71%는 수평이동자였다.
- 수평이동자 비율은 500명 이상 교회가 79%로 중대형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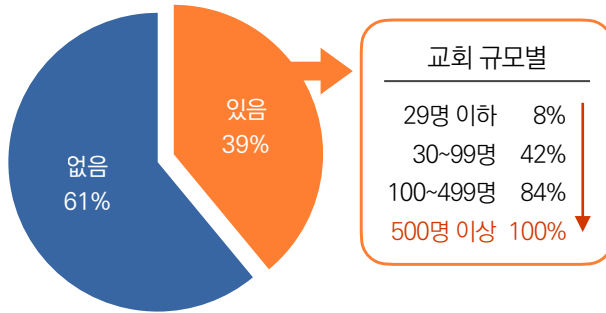
[그림] 전도로 교회 출석한 사람 유형 (2022년 기준 전도로 교회 출석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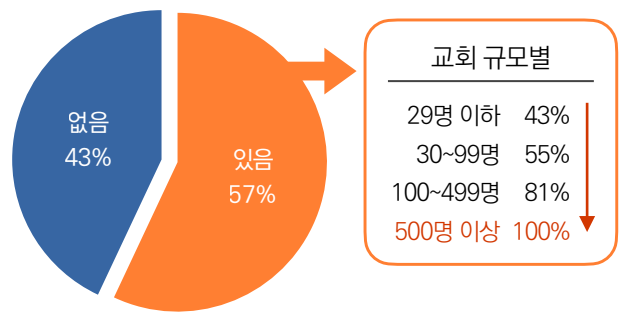
새신자 담당부서와 교육 여부, 소형교회는 제대로 갖추지 못해!

- 새신자 담당 부서 유무를 묻은 결과, '새신자 담당 부서가 있는' 교회는 10곳 중 4곳가량(39%)이었고, 새신자 교육 유무에 대해서는 57%가 '있다'고 응답했다.
- 새신자 담당 부서와 교육 여부는 교회 규모별 큰 격차를 보였는데 특히 '새신자 담당부서가 있다'는 응답률은 29명 이하 소형교회(8%)가 10%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100~499명' 84%, '500명 이상'은 100%로 규모가 클수록 압도적으로 높았다. '새신자 교육' 역시 교회 규모가 클수록 '있음'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새신자 담당부서 유무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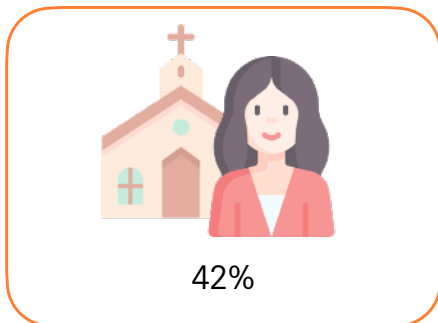
[그림] 새신자 교육 유무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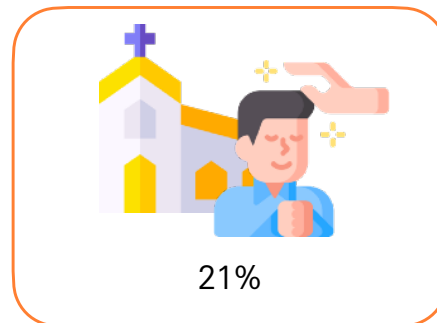
새신자 정착률 42%, 새신자 중 세례 비율 21%

- 담임목사들에게 새신자의 교회 정착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은 결과 새신자 정착률은 42%로 나타났다. 새신자 중 세례까지 받은 사람의 비율은 21%로 새신자 정착률의 절반 정도였다.

[그림] 새신자* 정착률 (담임목사)



[그림] 새신자* 중 세례받은 비율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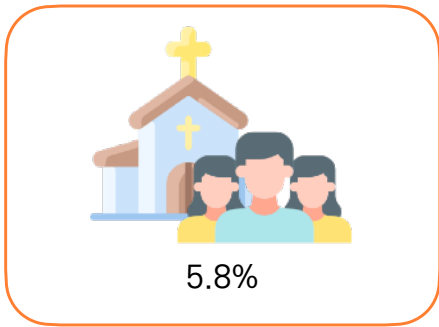


*권유가 아닌 스스로 교회 나온 사람까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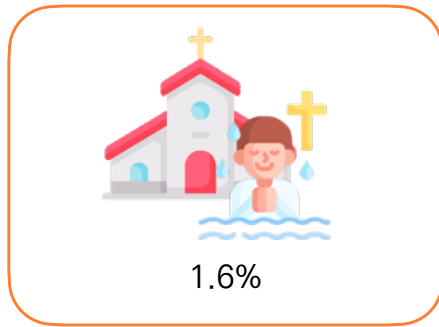
교회 출석자 중 전도 통해 교회오는 새신자, 연간 5.8%! 교회 출석자 중 연간 세례자 비율 1.6%!

- 전도를 통해 교회에 출석한 사람은 연간 어느 정도 될까? 이를 분석한 결과 교회 출석자 대비 연간 5.8%가 새로 교회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에서 교회에 새로 들어온 새신자 중 세례를 받는 비율이 21%로 나타났는데, 그 비율이 전체 교인 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교회 출석자 중 연간 세례받은 자 비율은 1.6%로 나타났다.
- 우리가 있지만 세례받은 자를 영혼 구원자로 간주한다면 한국교회에 그만큼 영혼 구원이 잘 일어나지 않는 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연간 전도를 통해 교회출석한 사람 비율*
(교회 출석자 대비, 담임목사, 2022년 기준)



[그림] 연간 출석교인 대비 새신자 세례받는 비율**
(담임목사, 2022년 기준)



*전도 방문자 평균/교인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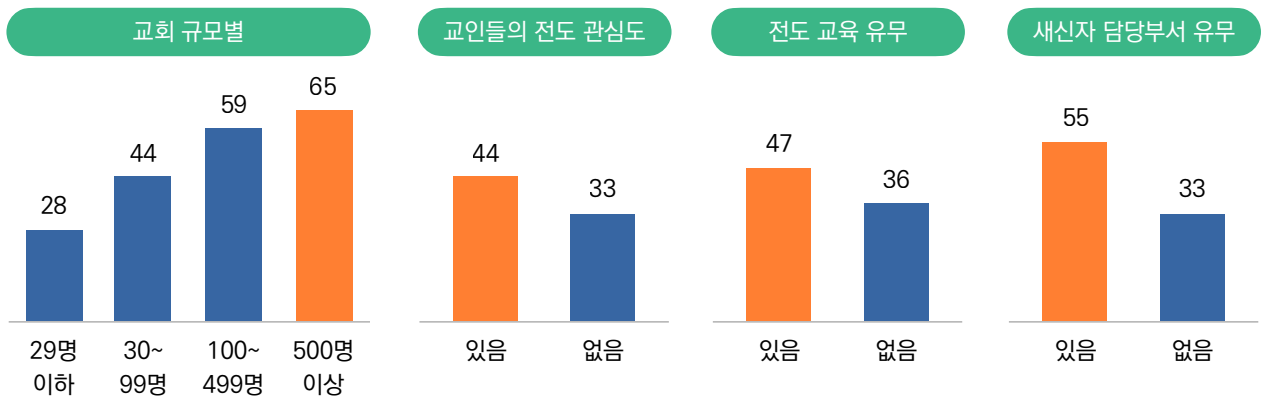
** $(\text{출석교인 대비 전도받아 출석한 사람 비율}) \times (\text{새신자 세례 비율}) = (\text{새신자 중 전도받은 신자 비율})$

Note) 본 조사는 새신자 세례 비율을 질문함에 있어 전도 받은 자 이외 본인 스스로 교회에 온 사람까지 포함하여 질문하였으므로, 전도 받아 교회 출석한 사람 이외에 스스로 교회에 온 사람까지 포함하여 산출하였음. (전도받은 신자의 비율은 '한국교회탐구센터, 새신자의 교회 출석 경로 및 교회 생활 실태 조사 보고서, 2021.10.'를 참조하여 '새신자 중 전도받은 신자 비율' 75%를 적용함)

전도 교육/새신자 담당 부서있는 교회에서 새신자 정착률 높아!

- 이번에는 교회 규모, 교인들의 전도 관심도 유무, 전도 교육 유무 등에 따른 새신자 정착률을 살펴보았다. '교회 규모가 클수록' 새신자 정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인들의 전도 관심도가 높을수록' 또 '전도 교육과 새신자 담당 부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새신자 정착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교회 특성별 새신자 정착률 (담임목사, %)



이번호 요약

1. 목회자,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영혼 구원', 하지만 한국교회 전도 실행은 미약!

- 목회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영혼 구원'(52%)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 하지만 전도 할당 예산은 11%에 불과했고, 목회자의 절반 가까이(45%)는 설교 시 월 1회도 전도를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전도를 통해 교회 오늘 새신자 비율은 전체 출석교인의 5.8%, 새신자의 세례받은 비율은 출석교인의 1.6%에 불과했다.

2. 목회자의 전도 열정과 실행력이 교인의 전도 관심과 열매로 이어질 수 있어!

- 목회자가 전도 교육을 안 하는 이유는 '우선순위 밀려', '잘 몰라서'가 가장 많았고, 교인이 전도 안 하는 이유는 '전도 인식 부족', '용기 부족'이 가장 많았다.
- 목회자가 설교 시 전도 강조할수록 교인의 전도 관심도 증가했으며, 교인의 전도 관심도가 높거나 전도 교육이 있고, 새신자 담당부서를 운용할수록 전도의 열매와 새신자 정착률이 높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기사\] “전도는 단지 프로그램 아닌 교회의 본질” \(기독일보\)](#)
- ▶ [\[서적\]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 \(정재영 외, IVP\)](#)
- ▶ [\[영상\] 선교적 교회와 마을목회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한국일 교수\)](#)

관련 성경 구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7)

목회 적용점

전도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자 한국교회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하지만 목회자의 관심과 교인의 실행이 사명만큼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사 결과 목회자가 전도에 대해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교인들의 전도 관심도, 실행력, 나아가 전도 열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목회자의 식어가는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전도 교육을 정례화시켜 모든 교인이 이해할 수 있는 교회 내 전도에 대한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전도가 왜 중요한지 그 동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전도 성공 사례를 보여줌으로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에 관한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현재 교회 내 적극적인 전도 활동자는 대략 10%로 추정된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해 전도의 최일선에 세우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한국교회 전도 예산 평균이 10%라는 말을 듣고 어느 목회자는 내년부터 당장 전도 예산을 증가시키겠다고 다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도 예산을 지금보다 증액시키는 것도 개교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무엇보다 교회 내 소그룹을 활성화하여 소그룹이 전도의 거점이 되도록 목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인의 불행 인식
2. 한국인의 복권 구매
3. 한국 평균임금 OECD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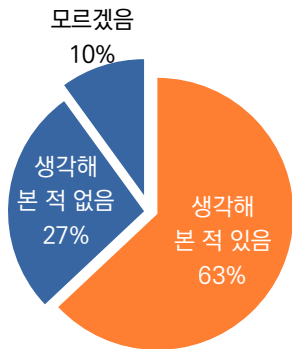


[한국인의 불행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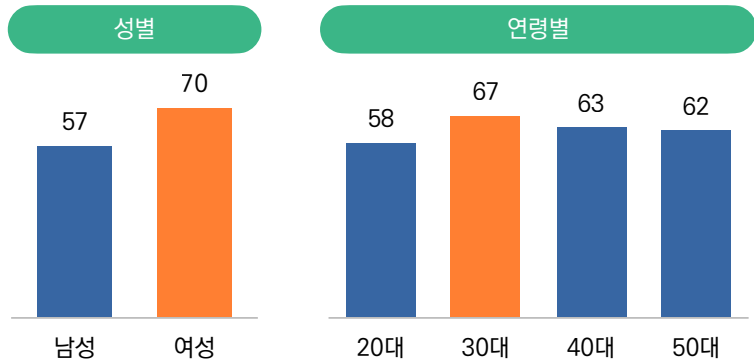
우리 국민 3명 중 2명 가까이, 내 삶 불행하다 느낀 적 있다

- 독일의 한 기자가 쓴 '한국인의 이상한 행복(2022)'이란 책은 한국인의 불행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정말 불행할까? 우리 국민 중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다.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63%로 우리 국민 3명 중 2명 가까이에 달했고, 남성(57%)보다는 여성이(70%), 연령별로는 30대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경험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그림]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경험 (일반 국민)



[그림]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경험 (성/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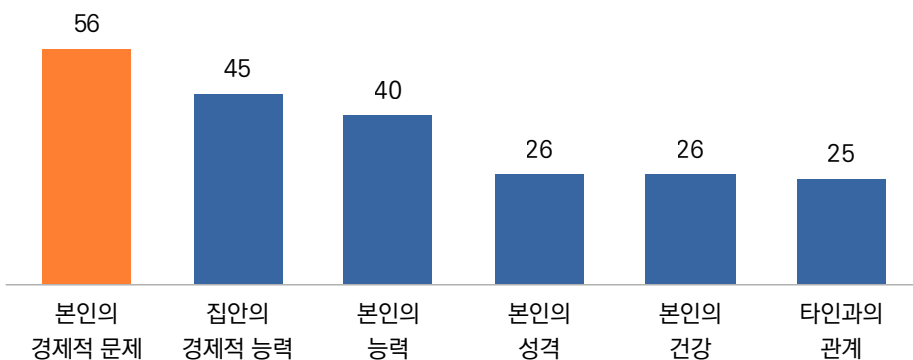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 2023.07. (전국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7.05.~07.07.)

내 삶이 불행한 이유, '경제적 문제' 가장 커!

-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본인의 경제적 문제'가 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안의 경제적 능력' 45%, '본인의 능력' 40% 등의 순이었다. 삶의 불행 요인으로 국민 다수가 '경제적 문제'를 꼽았다.

[그림]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이유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경험자, 중복응답, 상위 6위, %)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우울증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조사', 2023.07. (전국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7.05.~0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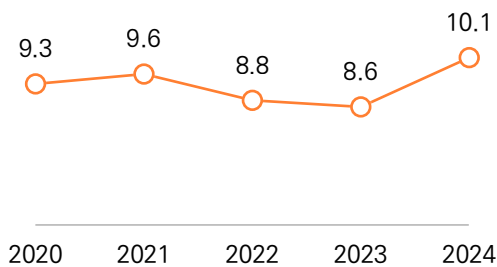


[한국인의 복권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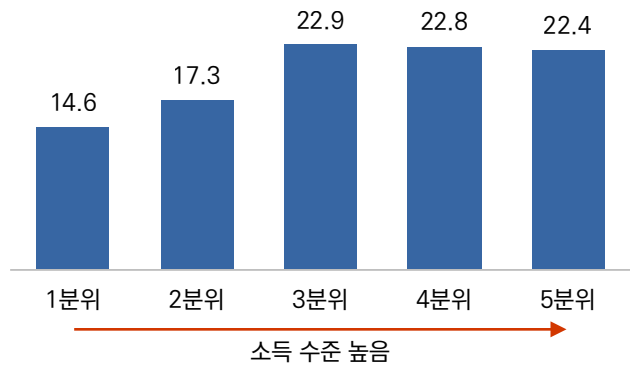
한국 10가구 중 1가구, 복권 구매하고 있어!

- 적은 비용으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기에 사람들은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복권을 구입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어느 정도 복권 구매를 하는지 확인해 보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연합뉴스), 2024년 1분기 기준 전체 가구 중 복권을 구매한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10.1%로 2020년(9.3%) 이후 같은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 소득 5분위별로 보면 '3분위'(상위 40~60%)이상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구매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그림] 전체 가구 대비 복권 구매 가구 비중 (해당년도 1분기 기준, %)



[그림] 소득 분위별 복권 구매 가구의 비중 (2024년 1분기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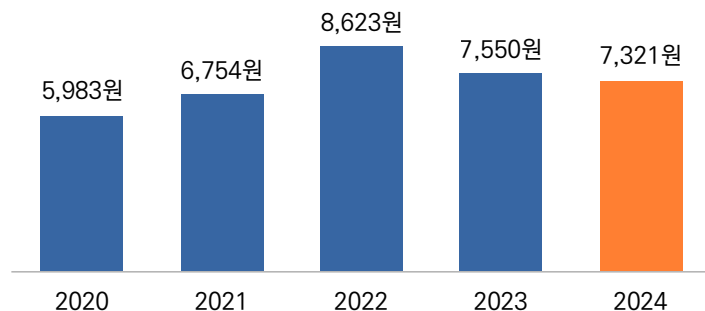


※출처: 연합뉴스, '복권 구입, 10집 중 1집꼴 '5년내 최대'...월평균 7천300원 지출', 2024.05.30.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9151700002?input=1195m>)

복권 구매 가구의 복권 구매액, 월 7,300원!

- 복권 구매 가구가 복권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2024년 1분기 기준 월평균 7,300원가량이었고, 4년 전(2020년) 5,983원 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복권 구매 가구의 월평균 복권 지출액 (해당년도 1분기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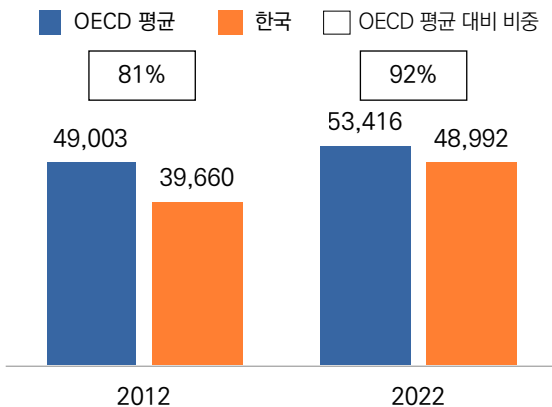
※출처: 연합뉴스, '복권 구입, 10집 중 1집꼴 '5년내 최대'...월평균 7천300원 지출', 2024.05.30.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9151700002?input=1195m>)



[한국 평균임금 OECD 비교]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의 90% 돌파!

-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OECD 평균임금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까?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22년 기준 48,992달러로 OECD 평균의 9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 81%에서 OECD 평균에 근접해 가고 있었다.

[그림] 한국과 OECD 평균임금 비교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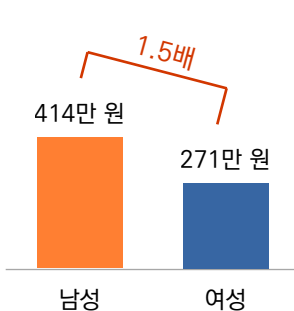


※출처: 연합뉴스,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돌파...일본 제치고 격차 벌려', 2024.05.23.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2144400030?input=119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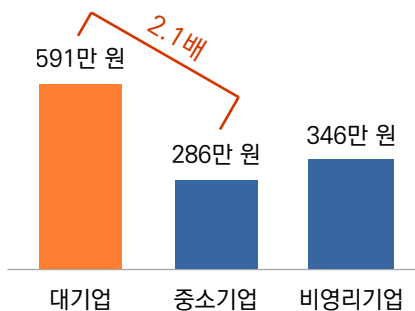
하지만 한국은 성별, 기업 규모별, 근로 방식별 임금 격차 커!

-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자료를 통해 성별, 기업 유형별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 대비 1.5배 더 평균소득이 높았고, 기업별로는 대기업 종사자가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2.1배 더 소득수준이 높았다.
- 고용 형태별로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 결과(고용노동부 자료), 정규직은 약 2만 5천원, 비정규직은 1만 8천 원가량으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성별, 기업 규모별, 근로 방식별로 1.4배에서 2.1배까지 근로자들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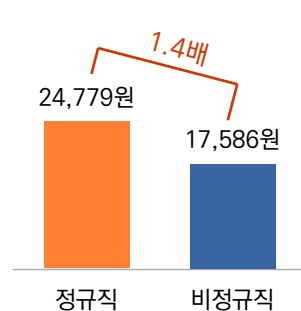
[그림] 성별 평균소득 (2022)



[그림] 기업 유형별 평균소득 (2022)



[그림] 고용 형태별 시간당 임금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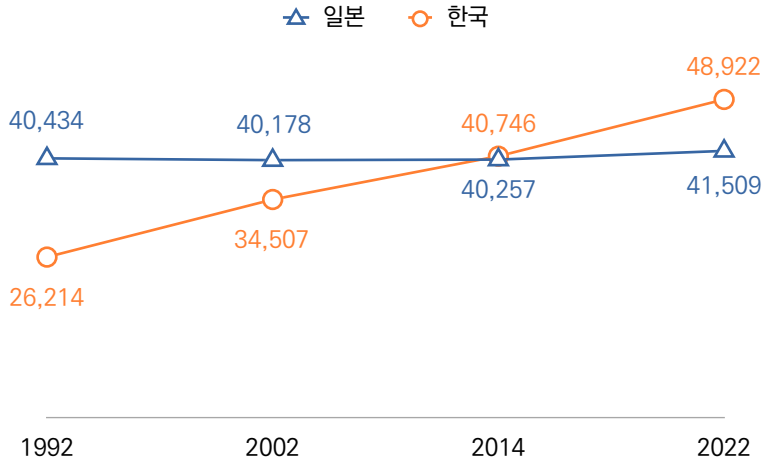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_보도자료', 2024.02.27.
고용노동부, '2023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_보도자료', 2024.04.30.

2014년 이후 한국이 일본보다 평균임금 앞서!

- 일본의 평균임금은 2022년 41,509달러로, 한국 평균임금이 일본보다 1.2배 더 높았다. 30년간의 한일 평균임금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일본은 정체 수준으로, 한국이 2014년 일본을 앞지른 이후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그림] 한일 평균임금 추이 (달러)



※출처: 연합뉴스,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돌파...일본 제치고 격차 벌려', 2024.05.23.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2144400030?input=1195m>)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86호 \(2024년 6월 2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오물풍선 위험성, 대북 확성기 방송, 의대 증원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기관\) 리포트 제124호 \(2024년 6월 3주\)](#)

- 국정운영 평가, 안보위협 체감,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의견

[한국인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노무현 31%...윤석열은?](#)

문화일보_2024.6.12.

사회 일반

["의료기관 10곳 중 6곳 '대리처방'...의사 부족해 불법의료 여전"](#)

연합뉴스_2024.6.16.

[1월 자살 사망자 34% 늘었다, 남성 44% ↑ ..."유명인 자살 모방"](#)

중앙일보_2024.6.14.

["10명 중 3명만 뉴스 믿어...한국인, 언론 신뢰도 하위권"](#)

연합뉴스_2024.6.17.

[작년 노인 학대 7025건...가해자 10명 중 6명은 배우자·아들](#)

조선일보_2024.6.14.

[이주민 16년 새 4배...인구 빠져나간 지방에 '새로운 이웃'으로](#)

한겨레_2024.6.17.

["이렇게 슬픈 일, 2년뒤면 닥친다"...팔 걷어붙인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비](#)

매일경제_2024.6.17.

[고령층 키오스크 사용 늘었지만...모바일앱 사용은 여전히 저조](#)

연합뉴스_2024.6.12.

[\[단독\] "선생님, OO랑 잤죠?" 학생이 교사 성희롱...피해 신고 77% 늘어](#)

조선일보_2024.6.17.

[유럽·캐나다처럼 한국도 2%대 물가지만...농산물·외식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앙일보_2024.6.15.

["주말에 최소 두 탕, 청첩장 받기 무섭다"...확 오른 식비에 '5만원 축의금' 눈치 보이는 직장인들](#)

매일경제_2024.6.17.

[미혼남이 미혼女보다 20% 많다... 결혼하기 힘든 이유 있었네](#)

조선일보_2024.6.18.

청년

[MZ세대 가치관 변화·웨딩플레이션에 '노웨딩족' ↑](#)

동아일보_2024.6.16.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글로벌 리더 76% "경제적 기회 확대에 AI 등 신기술 필수"](#)

연합뉴스_2024.6.13.

["출근·재택 병행하면 더 행복하고 건강...의욕·생산성도 높아"](#)

연합뉴스_2024.6.17.

[직장인 68% "내년 최저임금 1만1천원 이상 돼야"](#)

연합뉴스_2024.6.16.

[창업 10명 중 4명은 2030 젊은 사장님](#)

조선일보_2024.6.13.

["젊은층보다 노련, 모바일도 능숙"...'파워 시니어' 퇴직은 없다](#)

중앙일보_2024.6.14.

[60세 넘은 '실버일꾼' 비중 급증...가장 늙은 일본도 뛰어넘었다](#)

중앙일보_2024.6.14.

["생산직 25%가 5060, 20대는 외국인"...한국 청년이 없다](#)

중앙일보_2024.6.14.

['몸만 말고 마음도 퇴근' 조직 따라 다른 효과](#)

동아일보_2024.6.17.

국제 · 환경

[美, 전세계 대외투자 3분의 1 흡수...고금리·산업정책 영향](#)

연합뉴스_2024.6.17.

[세계는 지금... "바이든 지지" 43% vs "트럼프" 28%](#)

조선일보_2024.6.12.

건강

[멸치·뱅어·빙어 자주 먹는 女, 건강하게 오래 산다](#)

동아일보_2024.6.17.

[위장·대장·심장도 힘들다...폭염 일수 증가가 부르는 12가지 질병](#)

조선일보_2024.6.12.

기독교 · 종교

["전도 통해 교회 방문 교회당 연 7명꼴... 초신자는 10명 중 3명"](#)

더미션(국민일보)_2024.6.17.

[꽃 기독교인 56% "신앙 지킨 대가는 적대·소외·차별"](#)

더미션(국민일보)_2024.6.16.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 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벚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재)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3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원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